

발달학 측면에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심리학적 분석

이선자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노인에 대한 태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태도검사가 제작되었다. 응답자는 9세~84세의 남자 577명, 여자 572명 총 1,149명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아동기에 가장 긍정적이며 청년기에 이르러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이러한 태도가 성인기와 중년기까지 지속되며 노인기에는 이러한 부정적 태도가 가속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태도변화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시기 즉, 시간전망의 전환점은 중년기 중반 즉 40대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심리영역은 노인의 적응 및 대인관계, 노인복지, 신체적 특성 등의 영역이었고 노인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개인특성은 조부모의 생존여부와 그들의 경제능력으로 나타났다.

노인기는 신체적, 정신적인 면이 노쇠하는 시기이다. 신체적인 노화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 막을 수가 없는 현상이며, 정신적인 노쇠는 반드시 물리적 시간 즉, 나이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일에서의 은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노인기에는 자아정체감에 필연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노인의 내적 외적 특성은 나이든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고착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 든 고령자가 사회의 일탈자가 되는 것은 그 개인의 부족 때문일 뿐 아니라 사회가 노인 취급하는 데서 벌어지는 노쇠현상이거나 또는 그 사람을 결합 있는 인물로 명명 내지 낙인(labeling) 짓기 때문일 수도 있다 (Kuypers 와 Bengtson, 1973).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기란 일생 중에서 직접적인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단계일 뿐

이다. 노인기는 가정과 사회에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전승시키고, 개인으로서는 성숙한 인생을 마무리짓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일반인들이 노인과 노화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심리학의 전영역에서 조사하여, 앞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노인 자신을 포함한 각 연령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의식구조를 조사하고 둘째, 연령단계 및 제 심리영역들 그리고 각 개인의 일반특성 등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변화나 차이점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또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일이다. 셋째,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해서 노인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처하는 현실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노인문제에 대한 이론 및 실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론적 배경

1. 태도의 정의

전통적인 태도의 정의가 무엇이라는 데 대해 학자들 간에 약간씩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태도의 정의를 살펴 보면 태도란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지속적인 심리적 체제(McKachi Doyle, 1966; Rosenber, et al., 1960)이며, 또한 심리적 대상에 대한 개인의 사고나 감정 그리고 행동이 체제화되는 추론된 성향(inferred disposition)(Smith, 1969)으로서 심리적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이다(Thurstone 과 Chave, 1929).

2. 노인에 대한 태도를 다룬 선행연구

노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노년학의 학문적인 연구 초기부터 관심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를 연령군(age group) 별로 보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50년대초이다(Bell, 1976).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학생들을 조사대상자로 했으며 측정도구도 비교적 단순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연구목적도 노령(old age)에 관한 많은 고정관념을 입증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의 결과는 물론 부정적이었다(Tuckman 과 Lorge, 1953; 1954). 젊은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노인세대도 역시 노령을 쇠퇴나 쇠잔, 경멸과 관련짓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노인 당사자들 즉 노령군(old age group)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Tuckman 과 Lorge, 1954)이며, 또한 불쾌한 형용사를 미리 붙여서 노인을 연구한 사실(Mason, 1954)을 보더라도 연구자 자신들조차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 세련된 형용사조사법(Aronson, 1966), 의미미분법(Osgood, 1957), 리커트 척도 등이 개선 발전되었다(Peters, 1971). 척도의 다양화와 세련화는 노인에 대

한 태도의 연구방향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다양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도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Eisdorfer, 1966; Kogan, 1961). 연령집단별로 조사한 결과 제시된 자극에 따라 노령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Eisdorfer, 1966; Hickey 와 Kalish, 1968; Shanas 1968). 한편 세대간 연구에서는 노인 응답자에 비해 젊은 세대의 부정적 태도가 감소되었으며(Back, 1971; Bortner, 1967; Carp, 1968; Robin, 1971), 노인 응답자들 자신이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었다(Gergan 과 Back, 1966; Lehr, 1967). 그러므로 연구방향의 변화가 노령이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였음을 간파할 수 있다. 특히 연령은 노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주요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령변인 외에도 교육수준, 노인과의 접촉경험, 노인과의 동거여부가 노인에 대한 태도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노인과의 접촉 경험은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갖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Gordon 과 Hallauer, 1967; Porter 와 O'Connor, 1978; Rosencranz 와 McNevin, 1969; Ross 와 Freitag, 1976; Tuckman 과 Lorge, 1959). Hans(1973)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검증하는 지표로서 유익한 변인은 두 개뿐이며 그것은 노인이 갖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인들과의 접촉이라고 했다.

개인적 특성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여자가 더 고정관념적임을 보여주는 연구(Kogan, 1961; Tuckman 과 Lorge, 1952; 조명희, 1974; 차용은, 1980)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유의있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roxler, 1971; Tuckman 과 Lorge, 1953a). 그밖에도 아버지의 직업(Rosencranz 와 McNevin, 1969)이나 전공영역(Tuckman 과 Lorge 와 Spooner, 1953; Spence et al., 1968)도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다.

방 법

1. 연구내용

선행연구의 결과로는 전연령층에 걸친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연속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연구목적과 내용 그리고 관점을 달리하고 있었으며, 사용된 척도와 대상 연령이 각각 달랐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단계에 있는 한국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공통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직접 비교하여 연령군에 따른 연속적 변화를 알아보려고 태도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연구자 자신이 제작한 것으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심리학 문헌들과 국내외의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검사지는 검사대상자의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1부와, 반응자 자신의 의식구조 경향의 정도를 분별하여 반응할 수 있는 심리영역별 101문항으로 구성된 2부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는 연령군을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인기로 나누어 각 연령단계의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변인 외에도 9개의 일반특성을 포함하였고, 태도가 다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8개의 심리학적 영역들을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변인으로 정하였다. 이들 변인들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연령단계 및 일반특성과 노인에 대한 전체 태도

(조사 대상자 특성)		(노인에 대한 전체 태도)
연령단계	1. 아동기(9~12세)	심리 영역 1. 노인전망과이미지 2. 노인의 신체특성 3. 노인의 지적능력 4. 노인의 성격특성 5. 적응 및 대인관계 6. 은퇴 및 경제 7. 노인의 가족관계 8. 노인복지
	2. 청년기(13~25세)	
	3. 성인기(26~39세)	
	4. 중년기(40~59세)	
	5. 노인기(60세이상)	
일반특성	1. 연령	
	2. 성별	
	3. 학력	
	4. 종교	
	5. 생활정도	
	6. 노인의 생존여부	
	7. 노인과의 동거여부	
	8. 노인의 경제 의존여부	
	9. 노인의 경제능력	
	10. 노인의 건강상태	

2. 측정도구

태도를 검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본 태도검사는 자기보고법 중에서도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리커트 스케일을 채택하여 5점 척도상에서 반응하도록 제작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선정은 주로 통계적 방법에 의존하였고 문항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논리적 검토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도구는 각 연령군에서 12명씩 전 예비조사 대상자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도가 조사되었고, 그 결과는 Cronbach의 α 계수로 산출되었으며 심리영역별로 보면 문항은 총 101문항이며 척도의 내용과 영역별 문항수 구성을 보면, 노인에 대한 전망과 이미지 영역이 16문항, 노인의 신체적 특성이 10문항, 노인의 지적 능력이 9문항, 노인의 성격특성이 16문항, 노인의 적응 및 대인관계가 16문항, 노인의 은퇴 및 경제적 능력이 12문항, 노인의 가족관계가 13문항, 그리고 노인복지 영역이 9문항이다.

3. 조사대상자 표집 및 자료처리

본 검사는 1988년 1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1989년 1월 24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 거주자를 중심으로 성별, 수입계층, 연령 등이 고른 분포를 보이도록 임의의 행정구 지역에서 다단계 무선표집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지는 총 1,730부 배부되었으나 회수된 것은 1,270부였고, 이중 미완성됐거나 불충실한 응답으로서 미미하거나 적합치 못한 58부를 누락시키고 최종적으로 수집된 1,149(66.4%)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표집된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만9세에서 84세까지가 포함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군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성별 연령군별 군포(N)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인기	전체
남자	110	136	125	104	102	577
여자	103	140	125	103	101	572
계(N)	213	276	250	207	203	1,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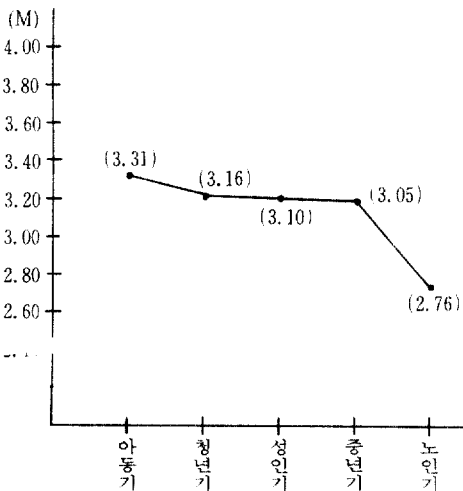
각 연령군에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연구대상자를 앞서 밝힌 척도의 내용대로 개인특성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각 변인의 특징에 따라 다시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단순변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의 종속변인으로 분류된 심리영역 8개의 변인에 대한 각 특성변인별 유의도와 각 변인 간의 관계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Chi-square(X^2)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설정한 각 변인별, 연령군별 문제의 검증에는 평균치(M), 표준편차(SD), t-검증, F-검증, 변량분석법(ANOVA)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의 신다원범위 검증법(New Multiple Range Test)을 사용하였다. 각 연령군과 일반특성 변인이 각 영역별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 다원회귀법(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전반적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전연령군에 걸쳐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 분석해 본 결과 연령군에 따른 유의한 차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부정적인 추세로 변화하였다.



〈그림 1〉 연령단계별 태도(M)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Duncan 검증 결과 크게 세 집단으로 묶여질 수 있었다. 즉, 아동기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청년기에 이르러 점차 부정적인 태도가 개입되어 이것이 성인기와 중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인기에 들어서 급격히 부정적인 태도가 가속화되는 현상을 나타냈다(그림 1).

또한 노인에 대한 태도를 각 심리영역별로 세분해 본 결과 역시 전영역에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중간 이상의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 패턴은 각 영역마다 다소 상이했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선행연구나 일반적인 사회통념과는 달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비교적 적으며, 각 심리영역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원인을 심리영역별, 개인특성별로 세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조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긍정적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실제 태도보다는 노인에 대한 교과서적인 바람직한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청년기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노인 평가가 표출되기는 하지만 그 양상이 불명료한데, 이는 청년기의 관심사가 대체로 자기지향적이어서 노인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성인기와 중년기는 발달 단계상, 가정에서는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이중적 책임을 지며, 사회적으로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감 성취와 더불어 개인의 직업적 능력에서의 성과를 점검하는 시기이므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늙어가는 부모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양가색일 수밖에 없다. 즉, 한편으로는 노인부양이라는 부담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시간전망(time perspective)의 변화와 더불어 노인 문제를 자신의 미래문제로 실감하기 때문이다.

노인기에 이르러 급격히 부정적인 태도로 기우는 현상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노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직접 접하는 당사자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진실을 반영할 수 있다. 즉 노인에 대한 노인 자신들의 태도야말로 노인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물론 당사자이론(The Person's Theory)의 가설은 단순한 질문지점으로 검증되기에는 한계점이 있지만, 노인을 제외한 다른 연령군에서 보이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는 노인 자신들이 겪는 부정적인 태도와는 상치될 수 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

이를 낙인이론(Labeling Theory)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노인이 그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개인의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주변 사람들과부터 결합있는 인물로 명명되거나 낙인지 위키기 때문이다. 노인기의 외부환경에 대한 취약성은 주변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가 노인 자신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연령군별 심리영역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중간적 태도

연령군별로 전체 문항에서 얻은 점수를 긍정적 점수, 부정적 점수, 그리고 중간적 점수로 분류 채점하여 얻은 평균점수(M)와 반응백분율을 구했다. 점수의 분류기준은 M이 3.6점 이상을 긍정적 태도, 2.4점에서 3.5점까지를 중간적 태도, 그리고 2.3점 이하를 부정적 태도로 구분하였다. 얻어진 평균 점수를 토대로 하여 각 연령군별 심리영역별로 백분율을 얻었다.

(1) 심리 전 영역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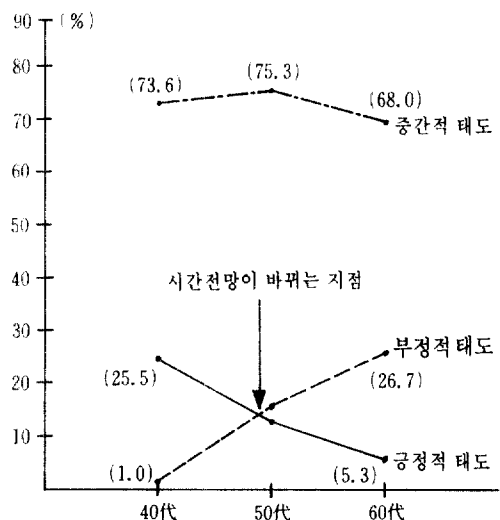
전 연령군의 조사대상자 총 1,149명 중 긍정적, 부정적, 중간적 태도의 비율을 보면 긍정적인 태도가 19.2% (220명), 부정적인 태도가 6.6% (76명), 그리고 중간적 태도가 74.2% (853명)로 나타나 세 가지 유형의 태도에 있어 모든 연령군 및 심리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즉, 전 연령군의 모든 심리영역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경미하고 대부분이

중간 이상의 태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반응 결과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특히 중년기와 노인기 사이에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경향성이 교차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에 대한 태도 방향에서의 변화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를 밝히기 위해 40대, 50대, 60대로 더 세분하여 F검증을 하였고 백분율로 집단간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세 집단간의 긍정적, 부정적 반응에 유의하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그림 2에서 보듯이 긍정적 태도로부터 부정적 태도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차점을 40대말에서 50대초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중년기에 이르면서 죽음에 대한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일생 전체라는 긴 시간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Levinson, 1978). 즉, 중년 이후부터는 나이를 거꾸로 계산해 나가며 노인의 문제가 바로 머지 않은 자신의 문제임을 절감하게 되어 노화에 대해 더욱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지각이 중년들에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노인 전망과 이미지에 대한 태도

이 영역에서는 각 연령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



〈그림 2〉 중년기 중반에서의 시간전망의 전환점

이나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대나 두려움, 노인들에게서 받은 일반적인 인상이나 수용, 또한 노인에 대하여 형성한 독특한 느낌들을 표현한 분야로서 전반적으로는 중간적 태도를 보였고, 부정적 태도는 거의 없었다. 이같은 경향성은 노인에 대한 전체 태도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3) 노인의 신체적 측면에 대한 태도

이 영역에서도 중간적 태도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를 연령군으로 볼 때 아동기의 긍정적 태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노인의 경우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 조사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고 동시에 부정적 태도도 전 연령군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노인들이 자신의 육체적 한계점에 대해 더욱 심각히 받아들인다는 것을 시사하며, 사실상 노인의 신체적 측면에 대해 기타 연령층에서 나타낸 태도가 다소 긍정적이었던 것 자체는 오히려 노인의 신체적 측면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4) 노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태도

이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부정적 태도가 많이 보였다. 이를 연령군별로 볼 때 흥미로운 것은 노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중년기, 노인기에 현저히 나타나 노인의 지적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년기에 이르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기억 인출저하를 경험하게 되면서 노화에 따른 인지 능력의 감퇴를 절감하게 된다(Craik 와 Masano, 1969; Schonfield 와 Stones, 1979). 사실상 중년기나 노인기에는 인간의 지적 능력 가운데 결정화된 지능(crystalized intelligence)은 별로 감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적 지능(fluid intelligence) (Horn 과 Cattell, 1966)의 결손을 일반적인 인지증력의 감퇴로 지각하면서 지적 능력의 감퇴를 심각하게 평가할 수 있다.

(5) 노인 성격특성에 대한 태도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중간적 태도(89.7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관념적으로 노인이 되면 성격이 파격해지고 까다로워진다는 견해와는 상치되는

결과이다. 사실상 청년기 성격특성이 노년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연구도 많다(Mischel, 1978). 또한 개인의 성격변인의 하나인 인지양식도 일생을 통하여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Witkin, Goodenough 와 Karp, 1967). 이와 같은 성격특성이 연속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록 개인차는 있겠으나 노인의 성격특성이 특별히 부정적으로 평가될 근거는 없었다.

(6) 노인의 적응 및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중간적 태도를 나타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84.2%). 전 연령군의 부정적 반응 비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보아 노인의 적응 및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는 노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태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Mischel (1969)에 의하면 일생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보는 관점, 즉 자아개념에 있어서 상당한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한다. 이는 일생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일관된 성격에 기초하여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 및 균형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노인이 되더라도 대인관계 및 적응에서 비교적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으므로, 그 결과 노인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전 연령층에 걸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없다는 점이다(김태련, 1988). 즉 객관적으로는 노인의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노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인간적인 의사소통 통로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에 가정적, 사회적인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7) 노인의 은퇴 및 경제적 측면에 대한 태도

이 영역에 대한 태도 역시 전 연령층에서 비교적 중간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긍정적 비율은 노인기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 자신들이 가치있는 존재로서의 자아개념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인의 경제측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8) 노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태도

이 영역의 태도는 전 연령에 걸쳐 중간 이상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아동기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노인들 역시 자신의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중간적 태도를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전 연령층에서 핵가족 중심의 생활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핵가족 지향의 현대사회 풍조와는 의견상 상치되는 것 같으나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정공동체로서의 가족역할이 강조되는 대가족제도의 장점을 깊이 인식함을 시사한다(고영복, 1983). 이는 정서위주의 전근대사회가 지성위주의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측면이 소홀히 되기보다는 오히려 존재의 의의 수용되어지고 인간적인 감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본원지로서의 가족의 역할에 큰 관심이 주어지고 있음을 함의한다.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심리영역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노인의 위치가 거북스럽고 부담감을 주는 존재로서가 아닌 가족을 결합시키는 상징적인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노인복지에 대한 태도

전 연령층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매우 높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어 심리영역 중 가장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부정적 비율은 단지 .3퍼센트에 불과하였다. 내용을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보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양로원의 필요성 및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3. 각 연령군의 개인특성에 따른 태도

어떤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원회귀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아동기

아동의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영역은 성격특성, 노인복지, 그리고 가족관계였다. 아동이 노인의 성격특성에 대하여 갖는 태도는 조부모의 생존여부와 경제적 능력에 의해 영향

을 받았다. 즉, 조부모가 생존해 계실수록, 또는 조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을수록 아동의 노인성격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조부모가 생존하여 직접적인 접촉기회를 많이 가진 아동일수록 노인에게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2세대 중심의 핵가족에서 성장한 아동이 조부모와의 접촉기회가 제한될 때 특히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노인의 경제적인 독립성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은 경제력이 노인문제에서 간과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2) 청년기

청년이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 영역은 신체적 특성, 가족관계, 사회적 적응이었다. 청년이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하여 갖는 태도는 조부모의 생존여부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 즉 아동기와 청년기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노인에게 더 긍정적이었다. 청년이 본 노인의 가족관계는 조부모의 생존여부와 생활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결국 노인의 생활이 넉넉해야 가족내에서의 위치가 안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성인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는 노인복지, 사회적 적응, 지적 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성인기에 이르러 노인복지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인기에 이르면 노인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지향적이 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성인들의 태도는 노부모의 생존여부, 본인의 교육수준, 노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복지에 관심이 컸으나, 이는 노부모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경제력이 없는 경우 특히 유료복지시설에 대해 회의적임을 시사한다. 사회적 적응에 대한 태도에도 역시 경제능력이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노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성인들의 태도는 노부모의 생존여부 및 경제능력과 유관했다. 노부모

가 생존하여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할수록 노인의 인지능력에 대해 회의적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경제력을 곧 지적 능력, 나아가 전반적인 능력의 반영으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 같다.

(4) 중년기

중년의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에는 성격특성, 노인복지, 신체특성의 영역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노인의 성격에 대한 태도에는 본인의 성별 및 노부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노인을 더욱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노인의 건강이 나쁠수록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노인을 직접 보살펴야 하는 여성의 경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며, 특히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노인의 성격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복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 요인은 성인기와도 유사하게 노부모의 생존여부 및 경제능력이었다.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는 노부모의 생존여부, 본인의 교육수준, 노부모의 건강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노화과정 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인의 건강여부가 신체적인 특성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시사한다.

(5) 노인기

노인 자신이 갖는 노인기 특성에 대한 태도에는 주로 성격특성, 가족관계, 신체특성의 영역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노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태도에는 종교의 유무와 생활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종교를 가진 노인이 노인의 성격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점은 노인 자신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성격특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풍부한 노인집단일 경우 자신들을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노인들과 동일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국외자적인 입장에서 노인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신체특성에 대한 태도에는 노인의 경제능력, 본인의 성별, 생활수준의 영역

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여자노인이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신체적, 미적 측면이 여성에게서 강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각 심리영역의 문항별 태도분석

여기에서는 각 문항별 평균점수(M)와 유의도를 구하였고, 이를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단계별 각 문항에 대한 태도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각 영역의 문항을 평균점수를 가지고 내용분석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 전망과 이미지

이 영역의 문항에 대담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대부분 중간적 태도 점수인 2.3에서 3.5점 사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나만은 늙을 것 같지 않다”, “노인은 나하고 상관없고 멀게만 생각된다” 등의 문항에 대해 아동기, 성인기, 중년기에서 대부분 높은 부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사실상 노인기를 제외한 다른 연령층에서 노인 문제를 절실하게 자신의 미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존경심에 관한 문항에서는 전 연령층이 긍정적 반응을 함으로써 노인의 축적된 생활경험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시사된다. 사회전반에 걸친 이 같은 노인에의 존경심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노인의 신체적 측면

“노인들은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노인들은 건강유지에 전력을 기울인다” 등의 문항에서 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이 긍정적으로 동의했다. 이에 비해 노인 자신들은 비교적 중간적 또는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측면을 보는 관점이 일치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젊은 세대는 노인을 한 개인으로서보다는 노인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 입각해서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과거의 노인상(image)에 비해 요즈음 노인들을 젊게 지각하거나 지나치게 건강문제에 집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노인의 지적능력

“늙는다는 것은 신체적인 변화보다 인지적인 변화에 있다.”에 전 연령 단계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늙는다는 것은 신체적 변화보다 인지적 변화에 있다”는 항목에 전 연령층이 부정적 태도를 보여 노인의 지적 능력을 부정적 태도로 지각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상 지적 능력의 최종 급강하설(Terminal Drop)(Baltes, 1973; Baltes & Schaie, 1973; Jarvik, 1972; Kleemeier, 1961; 1962; Mayer, 1967; Riegel & Riegel, 1972)에 따르면, 인간의 지적 능력은 신체적 능력에 비해 연령에 따른 감퇴가 비교적 적으며 사망 직전 5년 정도 즈음에서야 비로소 확실히 나타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층에서 노인의 인지 능력을 신체적 변화 그 자체보다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명백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사회는 경제성, 생산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곧 지적 능력의 감퇴와 연결시키게 되고, 그 결과 은퇴한 노인들이 지적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동기의 경우 노인들도 정확한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고 반응한 것은 흥미롭다. 이는 아동들은 조부모들로부터 실생활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 노인의 성격특성

전 연령 단계가 공히 긍정적 태도를 보인 문항은 “사람은 늙어갈수록 종교를 믿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노인들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적은 일을 철저하게 하려 한다”였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될수록 매사에 조심성이 증가한다. 이 이유로는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다소 상이하겠으나 대체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기능이 쇠퇴한 결과 부득이 조심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결과가설(consequence hypothesis)(Botwinick, 1959; Welford, 1958) 내지는 결정에 대한 자신감의 감퇴로 인해 조심스러워진다는 확신수준가설(confiden-

ce level hypothesis)(Silverman, 1963)이 유력하다. 이같은 조심성의 증가는 “노인들은 쉽게 해결될 일도 근심 걱정을 많이 한다”와 같은 문항에 대한 성인과 중년의 반응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그 결과 노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의존적이 되기 쉽고 따라서 아동과 청년들로부터 노인들이란 애정과 안정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닌 존재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향성은 노인들로 하여금 종교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킴으로써 오히려 성숙한 인격발달로 이끌 수 있다.

(5) 노인의 적응 및 대인관계

전체 연령 단계가 긍정적 태도를 보인 문항은 3개 문항으로 “사람은 늙어갈수록 부부간의 정이 더욱 깊어진다”, “노인들은 어린아이나 젊은이들과 지내기를 좋아한다”, “노인들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에서 긍정태도를 보였다.

전 연령층에 걸쳐 노인들이 동료 노인뿐 아니라 어린이나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한다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사회성이 결여되고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려 한다”는 문항에서 아동들은 중간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노인들은 괴팍하여 대하기가 어렵다”의 문항에 대해서도 중년기, 노년기에서 중간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연령증가와 함께 노인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 자신들이 “노인은 어떤 일에서나 소외를 당한다”고 반응함으로써, 노인기의 적응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에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6) 노인의 은퇴 및 경제적 능력

전체적으로 노인의 은퇴와 여가에 대한 평균점수 유의도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정적 경향을 보였다.

아동들은 “정년제한 없으면 노인도 능력을 발휘하여 일을 계속할 수 있다”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반응한 반면 “직장에서 나이많은 사람이 젊은이들의 승진을 가로막고 있다”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을 뿐 아

나라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역시 “노인이 은퇴를 해도 가정밖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으로써 은퇴한 노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에 호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 자신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년퇴직과 함께 사회활동은 끝이 나게 된다”고 반응하여 노인에 대한 젊은 세대의 태도는 단지 교과서적인 사회이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은퇴한 노인의 사회적 위치가 불확실함이 분명해진다.

(7) 노인의 가족관계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의 가족관계 영역에서도 아동기가 가장 긍정적 태도인 반면 노년기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이 영역에서도 연령증가에 따라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아동집단에서는 ‘노인을 집안의 권위와 존경의 상징’으로 보는 경향성이 높았으며, 노인들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많은 양보를 하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를 거치면서 노인의 가족관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며, 특히 핵가족 중심생활에 대한 회의를 표현하고 있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지할 때 가족관계내의 지위가 낮아지고 가족으로부터 소홀히 취급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노인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를 핵가족 생활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현사회는 점차 핵가족화가 가속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노인 스스로도 자신의 가치를 경제 능력과 결부시킴으로써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당당한 노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8) 노인복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아동기가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노인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표명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에 대한 반응이랄 수 있다.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모두에서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노인의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은 아동기를 제외하면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의 문제는 프랑스에서 1850년 노인연금제도를 실시한 이래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인류의 관심사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노인문제의 대두로 인도적 차원까지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사회적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논의

이러한 결과를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로 결론짓기에는 제한점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 연령에 걸친 노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양상을 전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구나 현실적인 노인문제와 관련된 심리영역과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들을 세분화함으로써 태도에 미치는 특정 영향 요인을 밝혀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태도에서 부정적 태도로 변화하는 시기가 중년기 중반인 것으로 밝혀진 것과 둘째,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던 영역은 노인복지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과 셋째, 전 연령층에 걸쳐 노인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태도가 실제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회학습이론(Mischel, 1968)의 가정을 지지해 주고 있다. 넷째,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점수가 높았던 영역은 노인의 지적 능력과 신체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한점으로는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법의 방법론적인 취약성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혼자서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험자들의 언어적인 부가설명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기타의 연령집단과는 검사 실시 시기

부터 다른 변인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질문지를 작성함에 있어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태도의 심리영역을 선별적으로 택했을 뿐 아니라 주요관심영역을 세분하는 과정에서 몇 영역이 중복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예비검사를 거쳐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이 낮은 항목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항목수에 차이가 생겼다. 또한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서울 거주자 중심의 표집이었다는 점과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편파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이 추후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실험연구를 통하여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숙(1987). 청소년의 노인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순남(1986). 한국 중년남녀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상규(1983). 노인과 가정.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김재은(1983). 인간발달의 과정. 서울 : 전망사.

김태련(1988).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 1, No. 1, 30-47.

윤진(1988, 제2판).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윤진(1982). 장·노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관계. 제5차 학술발표회 보고서, 서울 : 한국노년학회.

윤진·조석미(1980).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 노년학, 1, 75-85.

이선자(1986). 여자 대학생에게 비친 노인상. 미간행.

임장순(1979). 노인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구조에 관

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명희(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태도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차용은(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주대학논문집 9호.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 조사 1차보고서. 서울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한국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7). 도시가계연보 : 가족수입과 지출조사보고.

한국경제기획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7). 노인교과서. 서울.

Bee, H. & Mitchell W.(1980). *The Developing Person : A Life-Span Approach*.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Benett, R. & Eckman, J.(1973). Attitudes toward aging : A critical examination of recent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p. 575-597. In C. Eisdorfer & M. P. Lawton(eds). *The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and ag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Bengtson, V. L. and Kuypers, I. A.(1973). Generational difference and the developmental stag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 249-60.

Brubakers, T. and Powers E.(1976). The stereotype of 'old'. A review and alternative approach. *Journal of Gerontology*, 31(4):441-447.

Crandall, R. C.(1980). *Gerontology : A Behavioral Science Approach*. Massachusetts :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Davies, L. (1977). Attitudes toward old age and aging, as shown by humor. *The Gerontologist*, 17 : 220-226.

De Beauvoir, S.(1972). *The coming of age*. New York : Putnam's Sons.

Eri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and Sons. Inc.

- New York : Notron.
- Fishbein, M.(1967). *Readings i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John Wiley
- Havighurst, R. J. (1972. 3rd Ed.).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 David Mckay Co.
- Hurlock, E. B. (1974).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Delhi :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Ltd.
- Jung, C. (1933). *Modern man in search of soul*. New York : Atherton.
- Kogan, N. (1961). Attitude toward old people :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 44-54.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 Alfred A. Knopf.
- McTavish, D. G. (1971). Perceptions of old people : A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ndings. *The Gerontologist* 11(4) : 90-101.
- Mischel, W. (1968). *Personality and assessment*. New York : Wiley.
-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1975). *The Myth and Reality of Aging in America*. Washington, D. C.
- Palmore, E. (1971). Attitudes toward Aging as shown by humor. *The Gerontologist*. 3(3) : 181-186.
- Riegel, K. F. Riegel. & R. M.(1972). Development, drop and death. *Deveopmental Psychology*, 1972, 6, 306-319.
- Seefeldt, C. R., Jantz, R. K., Galpur, A. & Serock, K.(1977).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 Educational implic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 : 302-310.
- Schaie, K. W. (1975). Age changes in adult intelligence. In D. S. Woodruff & J. E.Birren(Eds.), *Aging : Scientific perspectives and social issues*.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 Thomas & Yamamoto,(1975). Attitudes toward age : An exploration in schoolag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opment* 6 : 117-129.
- Thorson, J. A., Whatley, L. & Hancock, K.(1974). Attitudes toward the aged as a function of age and education. *The Gerontologist* 14 : 316-318.
- Troxler, A. J. (1971).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Gerontologist* 11(3), pp.11 : 34.
- Tuckman, J. & Lorge, I.(1952a). Attitude toward old worke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6 : 149-153.
- Tuckman, J. & Lorge, I.(1953a). Attitude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 249-260.
- Tuckman, J. and Lorge, I. (1954a). The influence of changed directions on stereotypes about aging:Before and after instruc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4 : 128-132.
- Ward, R.A.(1979). *The Aging Expeerience,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New York , J.B. Lippincott Co.
- Witkin, H. A., Goodenough, D. R. and Karp, S.A.(1967). Stability of cognitive style from childhood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291-300.

Attitude Toward The Old People of Different Age Groups Through The Study of Psychological Aspects

Lee, SunJa

Ewha Womans University

A measure was developed for measuring attitude toward the old people. 577 male, 572 female total of 1,149 respondents, ages 9 through 84 were tested on this questionnaire. Attitudes were found to be the most positive in the children group, to slope gently in the adolescence, adulthood middle age, and to go abruptly down in the elderly group. A finding was made that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old age changed into the negative attitude in the middle age, at one's late forties. The psychological aspects affecting most significantly are old peoples' adjustment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ir welfare,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fluenced the most to the attitude toward old people appeared to be whether or not grandparents are presently living and to be financial ability of old people.